

## 한글機械化와 字盤統一의 課題

한글 기계화연구소 이사장 주 요 한

電子計算組織(EDPS)의 活用이 우리나라에서  
도 점차 普及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중  
대한 問題點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國文入力  
장치의 規格化라는 것이다.

表音文字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보통  
타자기(Typewriter)에 사용되는 글자판(Keybo-  
ard)이 그대로 컴퓨터 글자판에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 뿐 아니라 전신타자기(Teletype) 印刷所  
用 자동식자기(Monotype 또는 L-N otype) 사  
진식자기(Photo Typesetter)등에도 똑같은 글자  
판이 원칙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打字技術者는  
以上 여러가지 기계작업에 熟達하는데 時間의  
浪費나 混亂이 없다.

反對로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어서는 現在製作하는 會社마다 글자판이 다르  
고, 또 보통타자기나 전신타자기와도 다르기 때  
문에 熟達努力의 浪費와 打字時의 混亂現象이  
不可避하게 생겨난다.

그 뿐만 아니라 基礎的인 普通打字機의 글자  
판도 統一되지 못하고 있다. 電信受發用 풀어  
쓰기 打字機, 同모아쓰기 打字機, 소위 세벌식,  
네벌식, 다섯벌식 등으로 開發使用되고 있는 보  
통타자기 등으로 混亂을 이르고 있다.

따라서 上記한 各種 글자판을 어떻게 單一化  
하느냐 하는 것이 國家百年大計로서 철저한 研  
究開發의 課題로 등장하는 것이다.

(印刷出版에 있어서는 漢字併用을 고집하는  
限, 아무리 機械化를 시험하려해도 非能率의 이  
요 非經濟的인 根本的缺陷을 謀避할 道理가 없

고 未來指向的인 人士들이 「한글전용」을 主張하  
는 重要한 理由의 하나도 여기 있거니와 여기서  
는 일단 論外로 한다),

最近에 世界的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印刷術의  
이른바 第二革命(차거운方式=Cold Process)은  
전자계산조직과 사진식자방식을 結合시켜 組版  
速度의 高速化, 製作經費의 節約, 校正作業의  
簡便化, 遠距離同時出版의 可能性等 實로 革命  
的인 變革을 이르고 있거니와 이것 역시 表音  
文字專用的 前提下에서만 可能하다는 문제도 여  
기서 論及하지 않겠다.

問題를 『統一性 없는 한글 글자판의 批判』에  
局限하여 말하고자 한다.

代表的인 表音文字인 로마字는 世界的으로 統  
一된 글자판을 利用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  
(예하면 프랑스語, 더이취語等에 있어서)한두개  
에 特殊符號등을 添加하는 以外에 基本的인 글  
자판은 소위 「유니버살·키보드」로 統一되어 있  
다. 이 傳統的 글자판이 若干 非合理的이라 함  
은 미국의 「드보라」博士가 研究指摘한바 있고,  
그가 科學的인 빈도(Frequency)조사에 依하여  
새로운 로마字 字板을 提示하고 普及을 促한바  
있으나, 多年間 使用되어온 「유니버살」鍵盤 使  
用技術者의 再教育 또는 새로운 타자기로 代替  
하는 莫大한 費用等の 理由로 改革이 挫折된 歷  
史가 있다. (最近 一部國家에서 이 科學的 字盤  
으로 代替하기 시작한 實例도 있다. 이것은 一  
時的인 改替費用을 長期的인 打字 時間 절약으로  
因한 經費節減과 比較計算한 結果, 「科學的」字

盤의 使用이 窮極의으로 利得이란 結論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글 機械化에 있어서 問題點은 소위 「모아쓰기」라는데 있다. 한글 子母音의 수효는 現行맞춤법에 있어서 풀어쓰기로하면 24字에 지나지 않고, 키키키키 등을 따로 둔다해도 28字면 족하다. 그런데 모아쓰기로한 結果는 常用 모아쓰기 한글글자가 約 2,000字에 達한다(1955年 文敎部 統計는 1,259字)

現在까지의 研究開發作業의 經過를 簡略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所謂 두벌식 字盤

(子音한벌 母音한벌)

子音=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14字

母音=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ㅜ ㅡ = 10字

合計 24字

이것은 現在 풀어쓰기 電信打字機에서 實用되고 있는바, 간단한 電文은 判讀할 수 있으나 長文電報는 習慣上 速讀이 不可能하며, 더구나 一般文書 또는 出版物 印刷에는 棼체로 實用化할 可能性이 없다.

다만 上記 24字만을 가지고 「모아쓰기」도 印出하는 方式을 송계범 敎授가 開發하였는데 缺點은 電氣信號를 保留했다가 모아쓰기 글자(例=대, 넓, 왕)가 完打 된뒤에 印字作用이 開始된다는데 機械部門의 복잡化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앞으로 電子신호로 適用하면 이缺點을 改善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電氣式 또는 電子式 合字作用을 보통打字機에는 適用할수 없다는 弱點이 있다.

(2) 所謂 세벌식 字盤

(初聲한벌 + 中聲한벌 + 終聲한벌)

初聲=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14字

(ㄱ ㅌ ㅍ ㅍ ㅍ 등을 넣으면 = 19字)

中聲=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ㅜ ㅡ ㅜ ㅡ ㅜ ㅡ = 14字

(中間母音 ㅜ ㅡ 을 더하면 = 17字)

終聲=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14字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14字

總計 = 56 - 64字

(但 初聲中 ㄱ ㅌ ㅍ ㅍ ㅍ 등 5字 및 終聲中 ㄱ ㄴ ㄷ ㄹ ㅁ ㅂ 등 6字를 合字印出하기로하면 總計 53字) 이글자판은 普通打字機에 配置할때 打字速度가 가장 빠르다고 할수 있으나 모아쓴 글자들의 일 부간격이 고르지 않고 또 ㅜ ㅛ ㅠ 등 가로 母音의 키가 짧아서 印出체제가 從來習慣된 活字印刷처럼 整齊하지 못하다는 印象을 주는 缺點이 있다.

그리고 5단위식 穿孔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 에 약 절반의 글자가 「취프트」사용을 不可避하게 한다는 批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在 軍部와 官廳 一部에서는 이 세벌식 字盤 進신타기를 實際로 使用하고 있다.

(3) 所謂 네벌식 字盤

(初聲한벌 + 中聲두벌 + 終聲한벌)

初聲=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ㅌ ㅍ ㅍ ㅍ = 19字

中聲=(받침아니 받는것)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ㅜ ㅡ ㅜ ㅡ ㅜ ㅡ ㅜ ㅡ ㅜ ㅡ = 14字

(받침 받는것) 上同 = 14字

終聲=세벌식과 같은 28字中 6字는 合字 = 22字 總計 = 69字

이 字盤은 現在 政府가 『標準字盤』으로 策定하고 있는 것이나, 단추(KEY)수효가 많으면서도 印出된 모아쓰기 글자의 모양이 「세벌식」보다 別로 나온것이 없는反面, 現在까지의 實驗結果打字速度에 있어서 「세벌식」보다 若干 떨어지는 成績이 나타나고 있다.

또 電信打字의 경우 5단위 穿孔테이프 또는 5단위 磁力테이프를 (信號數32)개 使用할 경우 3段취프트 使用이 不可避하고, 不可不 6單位코드를 使用하게 된다는 缺點이 있다.

(4) 所謂 다섯벌식 字盤

(初聲두벌, 中聲두벌, 終聲한벌)

初聲=가나다라 등에 쓰이는것 = 14 - 19字

고노도로 등에 쓰이는것 = 14 - 19字

## 提 案

中聲=받침없을때 쓰이는것=14字

받침있을때 쓰이는것=14字

終聲=단받침 ㄱ ㄴ ㄷ ㄹ .....등=14字

쌍받침 ㅃ ㄸ ㄺ .....=5字

(쌍받침 14개중 5개만 따로 配置하고 나머지는 合字하여 사용하도록함)

總計 75—85字

이方式은 合成된 글자가 傳統的 印刷活字에 가깝고 整齊하므로 「體裁式」字盤이라고 불리우는 利點이 있으나, 몇가지 缺點이 있다. 卽.

—打字速度가 若干 느리다.

—字數가 너무 많아 學習에 努力이 많이 든다  
—常用 2段쉬프트 Keyboard에 있어서 符號를 配置할 자리가 모자란다.

—5單位 電信코드를 使用하려면 3段쉬프트가 必要하다.

以上 簡略히 說明한바에 依하여 普通打字機에 만도 적어도 4種類의 字盤이 實用되고 있음을 알 수있겠고, 따라서 電子計算機의 入力 字盤도 製造會社마다 달리 開發되어 字盤의 統一性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例=IBM, CDE, UNIVAC, FUJITSU 等 製品이 導入되고 있는데 各社마다 다른 字盤을 使用하고 있다).

이러한 現狀을 로마字의 경우와 比較할때 混亂과 人力活用に 支障이 甚하다는 것은 不問可知의 事實이다.

앞서도 言及한 것처럼 로마字의 경우는 普通打字機, 電信打字機, 自動植字機, 寫眞植字機, 電子計算機等 여러 種類의 글자機械에 있어서 소위 유니버설(Universal)字盤이 通用되고 있음과 比較할때에 人力活用に 있어서 浪費가 막심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結論的으로 提起되는 문제는 어떻게하면 上記 各種 글자機械에 있어서 共通使用될수 있는 字盤을 發明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專門家가 아닌 個人으로서 거의 半世紀동안 한글機械化 開發過程을 지켜보아온 나 自身の 經驗의 判斷으로서는 이른바 「세벌식」字盤이 共通字盤으로 가장 適合하다는 結論이다.

그러나 이 問題는 마땅히 科學·技術 專門家들의 研究 對象으로 하여 徹底히 究明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하나의 研究課題로 提起하는 바이다.

現在の 混亂狀態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代代 孫孫으로 非能率과 浪費를 防止할 수 없을 것이요, 아직 文字印刷 機械化의 進度가 높지 아니한 現時點에서 統一字盤이 決定될수 있다면 比較的 적은 費用으로서 將來의 人的·物的 浪費를 極少化할수 있으리라고 보아 科學·技術界에 대하여 國家的인 課業의 하나로 提起하는 바이다.

끝으로 參考資料로서는 1972年 世宗大王紀念事業會刊行 「한글기계 글자판에 대한 심의보고서」를 一覽하기 바란다.

○ 우리국민 모두가 전사라는 결의와 필승의 신념으로  
똥쳐 민방위 대열에 앞장 섭시다

○ 민방위대는 외환으로부터 내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조직되었습니다